

데이비드 터너 박사, 요한복음, 세션 2, 소개, 2부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요한복음 소개, 2부, 역사적 및 본문적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다시 요한복음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디오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신학적, 문학적 측면을 소개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제 두 번째 소개 비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적인 문제, 요한복음을 얻은 방법,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본문 비평 유형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John의 웅덩이에 들어가 그 일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에 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요한복음에 대해 말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남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다에서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나는 요한복음의 역사적 신뢰성에 관한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Blomberg)의 훌륭한 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레이그는 요한복음이 얼마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야기했으며, 이 책의 일부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역사적 문제와 요한복음에 대한 전반적으로 훌륭한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논의하고 싶은 것은 저자의 문제이고, 요한의 저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외부 증거는 초대 교회에서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들로부터 요한복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부 증거는 기본적으로 책 자체가 저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 증거부터 시작하여 이르면 2세기 초 초대 교회에서 이레나이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4세기에 글을 쓴 유세비우스에 인용된 파피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요한과 요한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작자, 배경,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글들, 특히 유세비우스가 쓴 파피아스에 관한 논평은 일반적으로 요한을 소아시아 서부의 에베소 도시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우리는 요한이 그곳에서 생애와 사역의 마지막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피아스의 진술은 그가 제자 요한뿐만 아니라 장로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그래서 우리는 파피아스가 두 사람, 두 명의 다른 요한, 즉 한 개인으로서의 제자 요한과 또 다른 개인으로서의 장로 요한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데 몇 가지 주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파피아스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그 두 가지 다른 직함을 사용하여 같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완전히 탐구하고 싶다면 파피아스가 장로 요한까지 언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노력하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요한파 전문가가 아닌 다른 많은 일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요한과 함께 일해 온 누군가에게 요한복음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요한복음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두.

그리고 소위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것의 핵심을 형성한 요한 장로나 다른 요한 동료들이 있었다면, 나는 이 책의 가르침이 십이사도의 일원인 요한을 통해 걸러진 예수라고 말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자. 그리고 그것은 그 전통에 따른 복음, 곧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의 전통에 따른 복음입니다. 내부 증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의

저자는 목격자, 즉 열두 사도 중 한 사람, 예수님의 원래 추종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때, 그는 실제로 거기에 있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본 사람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다른 언급도 있는데,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식사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사람입니다. . 우리는 나중에 트리클리니움(triclinium)이라고 불리는 고대 로마의 3인용 소파 배치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부 증거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친밀한 동료이자 친밀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책 21장의 결론처럼 사랑하는 제자인 이 개인에 대한 언급이며, 사랑하는 제자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결코 말하지 않지만, 내가 거기에 가본 적이 있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둘 곳이 없을 줄 아노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일부였으며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에 대한 비스듬한 증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약간 비밀스럽게 저자로 식별되는 누군가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언급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따라서 책의 저자에 관해서는 완전한 익명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자격을 갖춘 익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초기 전통을 통해, 적어도 교회의 대다수는 책 자체에 있는 이 다소 모호한 증거를 제자이자 교회의 일원인 요한과 같은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12. 요한복음의 의도된 독자에 대해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복음 전체를 위해 기록되었는지, 넓은 독자를 위해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더 좁은 독자를 위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최근 복음 연구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편집 비평으로 알려진 학문의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후반 신약 복음 학문에서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수정하거나 편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 사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맞춤화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들 각 공동체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 내용이 공동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이론은 일종의 악순환이 되었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Richard Balcombe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서에 대한 그러한 접근 방식에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John의 청중에 대한 오늘의 생각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방금 언급한 고대 전통은 요한을 에베소 또는 그 근처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그의 사역의 마지막은 그곳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그의 자료는 특정 지역의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에베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후에는 교회 내에서 더 널리 퍼졌습니다.

J. 루이스 마틴(J. Lewis Martin)과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기독교인, 특히 디아스포라 전역의 회당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충성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요한복음 9장과 같은 본문은 예수께서 고치신 소경을 언급하고, 12장 42절과 같은 본문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면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며,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박해에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요한복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본질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회당에서 제명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집단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현재의 생각은 Richard Bauckham이 쓴 *The Gospels for All Christians*이라는 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Bauckham은 그 책을 편집하고 첫 장을 썼습니다.

그의 기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The Gospels for All Christians)라고 불립니다. 이 책의 이름은 그의 기사에서 따왔으며, 발췌본은 복음서가 아주 작은 공동체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이론화된 작은 공동체가 이 책 주석의 전체적인 기초가 된다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순환이 일어나서 데이터가 가설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가설이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는 거죠. 최근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이론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들어가고 있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관점에서 엄격하게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컴은 이 책에서 개별 세포가 아닌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된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이 책에 축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나 이 작은 장소의 집단, 또는 로마제국 내의 특정 기독교 계층의 기독교인들이지만, 이 복음서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차이점은 청중 사이의 차이점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저자가 만들고자 하는 개인적인 강세에 따라 설명됩니다.

따라서 초점은 교회 전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 저자의 평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복음서는 다른 출판물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기록되었지만 소수의 청중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자는 교회 전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책이며 고대 문학이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서가 어떻게 한 작은 지역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 어떻게 널리 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꽤 빠른 시간. 따라서 Bauckham의 주장은 Martin과 다른 사람들이 John의 제한된 청중에 대해 말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요한복음이 매우 유대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유대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복음서 중 가장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마태는 복음서 중 가장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유대교가 예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는지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적 특징이 많이 있고, 요한은 암시나 인용을 통해 끊임없이 구약성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예수님을 창세기 1장과 명확하게 연결하고, 예수님을 모세와 명확하게 연결하며,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말라기, 이사야 40장과 명확하게 연결합니다. 반박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은 조금 후에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만장일치의 전통이며, 요한은 아마도 공관복음서의 보충서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일종의 추측을 통해서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1세기 후반, 아마도 기원후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의 날짜를 조금 더 늦췄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John AT Robinson이 있는데, John AT Robinson은 John이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John은 아주 일찍 데이트를 했고, 그 논쟁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종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이 이 날짜에 기록되었음에 틀림없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가장 초기 문서가 P52, 즉 일반적으로 서기 125년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더 일찍 날짜가 지정되었고 일부는 조금 나중에 날짜가 지정되었지만 125는 상당히 안전한 날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John이 그보다 수십 년 전에 기록되었고 존재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작성된 원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에 요한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이 공관복음과 그토록 다른 점은 무엇이며, 요한이 어떤 면에서 공관복음과 유사하다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공통 내용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사적 관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리에 대한 그들의 지향은 무엇입니까? 문학으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학적 강조점을 어떻게 살펴보고,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보실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자료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쇄된 내용을 보고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너무 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의 구조를 비교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배열된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개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수난,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 요한에 관해 이야기하든 우리는 갈릴리 사역, 공개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시간,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일어난 일의 부활에 공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다음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고, 이전 슬라이드를 보려면 여러분이 작성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 갈릴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대해 말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공관복음 전통에서 예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가 부활 후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장 초반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며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상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곳을 오가며 여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주 놀라운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공관복음 전통에 따르면 예수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성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서두에 나옵니다. 복음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실제로 성전을 두 번 청소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한 번만 그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대다수는 공관복음이 역사적 기원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며, 요한은 예수의 사역 초기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주제별, 주제적 유형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끝까지 미루지 말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이 특정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지리학에 대한 요한의 초점이 공관복음의 초점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마침내 요단강 동쪽에서 잠시 잠시 쉬다가 돌아오십니다. 나사로를 고치고 우리가 공관복음 전통에서 흔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기 위해.

그렇다면 공관복음에는 요한의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공관복음 전통에서는 요한복음이 10%만 나온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이는 모두가 동의할 정도로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 778절 중 공관복음과 겹치는 내용이 있는 구절은 약 170절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축어적 표현 일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자료를 다루고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중복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 시간을 내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겹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내용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매우 다르지만, 내 생각에 그 요점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와 공관복음 후반부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문제를 다루지만, 그것은 공통된 내용입니다. 관리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공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요한복음 4장과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먹이신 것은 네 복음서 모두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는 분명히 공관복음 전통에서 발견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기름부음,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종려주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빌라도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 분명히 네 복음서 모두에서 그의 장사, 부활,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한잔 마셔야 해요.

따라서 우리가 방금 전에 기록한 이 모든 정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요한은 상당히 다르지만 공관복음 전통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에도 논의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4세기에 유세비우스가 쓴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유명한 인용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요한은 무엇보다도 외적인 사실을 의식하여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에 나는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언급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클레멘트가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외적인 사실은 복음서에 설명되어 있었고, 그는 제자들로부터 권유를 받았고, 신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적인 복음을 썼습니다.

번역에서는 두 복음서가 기술되는 방식에 대해 외적, 영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클레멘스의 원래 언어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것과 공기적인 것, 즉 외부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것 대 내부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의 구별을 말했습니다. 복음주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 및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해석학과 같이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해석학을 정확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Chrysostom과 같은 사람들의 해석학이지만 그들은 용어가 마음에 들든 싫든 여기서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무언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당신은 신체적인 것, 외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의 차이를 말함으로써 요한을 공관복음서와 비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용어에 대한 그런 사고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역사적인 설정이 사실이라면 요한은 실제로 공관복음의 보충 자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런 유형의 관점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 그를 신뢰하고 나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장려하기 위해 예수와 그가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특정한 것들을 골라내는 공관복음 전통보다 훨씬 더 선별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더 넓은 사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초점을 맞춘 공관복음보다 더 협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그것을 영적인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단어를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즉시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를 통해 예수님을 창세기의 창조주로 묶습니다. 요한복음이 본질적으로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방식.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일찍이 2장에서, 니고데모 이전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파괴, 즉 자신의 몸이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생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녀가 그에게 좀 더 주의 깊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용하는 은유적 언어, 상징의 사용,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의도적인 이중 의미는 아마도 클레멘트가 요한을 영적인 복음으로 말할 때 얻으려고 했던 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한이 여러 면에서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도발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이점 중 하나인 지리 영역으로 가서 요한복음과 지리학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께서 갈릴리와 갈릴리 사이를 여러 번 오가셨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제시된 방식과 반대되는 요한복음의 예루살렘.

게다가 요한은 예수께서 그의 복음서에서 참석하신 다양한 유대 절기에 관해 많은 말을 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예수의 사역이 3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참석하신 세 가지 다른 유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의. 우리는 공관복음 전승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지역에 땅이 배치되어 있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가 물론 갈릴리 출신이고 사마리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빨리 알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의 중간 지역이며 물론 예루살렘에도 많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의 일반적인 배치에 익숙하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옆으로 뒤집어 동쪽 방향을 지정합니다. 나는 이 방향이 아마도 여러 면에서 서구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남북 지도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중해가 국경이 되는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실제 방식과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한의 많은 부분이 이 지역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요르단 강 계곡이 있습니다. 이 멋진

지형도는 지질학적 균열로 우리를 보여주며, 우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로 인도합니다. 사해는 해발 약 1,200피트, 1,300피트입니다.

공관 전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요한복음에도 언급된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의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여기 남쪽, 요르단 계곡에서 올라오는 주요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발 2,700피트 정도, 여기 해발 1,200~1,300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마일로 꽤 먼 거리가 2,000피트에 달합니다. 꽤 가파른 여행이군요. 그 지역을 걸거나 당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나사렛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약 50마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라가 꽤 크고 세계에 여유 공간이 많은 서양에 사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대해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아마도 성전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실로암 못은 여기 아래쪽 도시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템플 마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는 로마의 요새인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다락방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오늘날 성경이 시온 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닌 시온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온 산은 성전 바로 남쪽에 있는 다윗의 도시입니다. 나중에 시온산은 이 지역의 서쪽 언덕에 적용되었습니다.

감람산(Mount of Olives)은 대략 남북으로 구시가지의 동쪽 능선에 있는 산이다. 지도에서 벗어난 감람산 반대편에는 아마도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베다니가 있었던 곳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성전 바로 동쪽에 위치한 겐세마네 동산.

내 생각엔 바로 거기 어딘가에 고대에도 설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장소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의 다마스쿠스 문 북쪽에 있는 정원 무덤에 고든 장군이 자신이 세웠다고 생각한 무덤, 즉 고든의 갈보리라고 불리는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고대에는 성벽이 아마도 이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묘교회는 아마도 개신교인 모두가 좋아하는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이 예수의 장사지라는 전통은 소위 동산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있는 이 장소와 관련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확고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전통의 또 다른 부분은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갔던 슬픔의 광선인 비아 돌로로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신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추가되었던 다양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 지역, 구 성전 산의 북서쪽 모퉁이, 본질적으로 서쪽이자 약간 남쪽에 있는 성묘 교회로 이동합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은 예수가 실제로 안토니아 요새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재판은 로마 임시 총독들이 어울렸던 것처럼 보이는 헤롯 궁전에서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현재의 자파 문 바로 남쪽에 있는 폐허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도 이전의 예수 시대가 헤롯 궁전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는 뭐라고 부르든 간에 아마도 북쪽으로의 여행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안토니아 요새에서 서쪽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회 전통이 아마도 역사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과 어느 정도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산이 여기에 있고, 다락방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은 전통적으로 말하면, 바로 여기에 감람나무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장사된 장소입니다. 글썄요,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통은 아마도 고든의 갈보리 교회보다 성묘 교회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역사적 지리적 문제에서 본문 문제로 옮겨가면 우리는 어떻게 요한복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은 물론 신약성서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초기 사본은 파피루스 52입니다. 이것을 파피루스 52 렉토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인 파피루스 52 뒷면은 시트의 섬유가 수평으로 보이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트의 앞면과 같으며, 섬유가 수직으로 흐를 때보다 수평으로 흐를 때 파피루스에 쓰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과 관련된 작은 조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번역에서 밑줄 친 부분은 원고에 실제 그리스어 단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한 말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어로 누군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udena는 영어 번역에는 제공되지 않는 그리스어 이중 부정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실제로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나(hinna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고스(logos)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로고라는 단어의 나머지 부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서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원고에 있는 전부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평생을 바치고 이 중요한 분야에 헌신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흥미 롭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실제로 요한복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에 동일한 단편 자료가 포함된 동일한 스크랩의 뒷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입니다. 여기에 다시 oudena라는 단어에 대한 두 글자만 있고 빌라도의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 사본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요한복음에 관해 훨씬 더 풍부한 사본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기 200년경의 파피루스 66에 있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은 여기에서 Euangelion Kata Ioannine이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인 en arxe en o logos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2장의 부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엑션(exousous), 권위, 테크나 테우(techna theou), 하나님의 자녀, 겐타이(genesthai)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대 사본이 한 일은 성스러운 이름을 쓰는 데 매우 흥미로운 약식 접근 방식인 nomina sacra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theou의 소유격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따라서 공간을 절약하고 이러한 신성한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은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자, 이 경우에는 세타와 엡실론을 취하고 이것이 신성한 이름임을 보여주기 위해 상단에 막대를 표시했습니다. 특별한 이름. 그리고 그 외에도 약간의 공간을 절약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파피루스도 절약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양의 종이를 버리고 불행하게도 매립지를 그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옛날에는 꽤 귀한 물건이었죠. 그런 다음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사본의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티칸 사본을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고 있던 이전 사본보다 아마도 150년 정도 늦은 것입니다.

이 원고를 쓴 사람은 여유가 있고 예술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장식이 있습니다.

같은 말, en arxe en o logos.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 납니다. 세상 자체는 기록되어야 할 모든 책을 담을 수 없다는 것, 요한에 따르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원고를 복사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승려든 서기관이든 뭐든 간에, 서기관 승려들은 훨씬 더 화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사본의 전체 기간, 즉 사본이 더욱 화려해지고,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졌던 소시대를 건너뛰고, 인쇄기가 발명된 1455년경 인쇄시대의 시작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왔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imprincípio erat verbum*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된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더 클로즈업된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Verbum erat apudei, word was with God, et dei erat verbum, and God was the word, 1455.*

따라서 그 당시 인쇄술 시대까지 신약성경 사본은 손으로 복사되었으며, 그 사본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신약성서의 다양한 변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고. 아마도 요한복음에는 가장 악명 높은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사본에 대한 본문 질문을 소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과 18절, 요한복음의 머리말이나 서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이제까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대부분의 버전에서 다음 단어는 아들이고 다른 버전에서는 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읽어보는 건 어때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느니라, 아니면 독생자를 읽느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시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은 NIV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NIV를 보면, 특정 판에서는 텍스트 변형이 포함된 난외 읽기가 제공되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를 알려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외부 증거를 볼 때 내부 증거와도 비교합니다. 본문 비평에 있어서 외부 증거는 사본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 고대 사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두 가지 판독 값이 모두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uios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여기서 theo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둘 다 Upsilon Iota Omicron Sigma와 Theta Epsilon Omicron Sigma라는 4글자 단어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상단에 막대가 표시되어 이름이 축약됩니다. 여기서는 두 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고에는 Upsilon Sigma 또는 Theta Sigma라고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문제의 문자가 Upsilon인지 아니면 Theta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스어로 된 문자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Uios 또는 Theos는 Upsilon Sigma 또는 Theta Sigma를 약칭합니다. 외부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일반적으로 Only God이라는 문구가 있고 거기에는 Thao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근 사본에는 비록 수가 많지만, 소문자는 일반적으로 신보다는 아들로 읽혀집니다. 본문 비평가들은 또한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이 내부 증거라고 부르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원본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John이 무엇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요한이 한 가지를 썼다면, 그것이 우리가 다른 내용을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두 가지,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다른 곳에서 무엇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어떤 독서가 다른 독서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일부일처제, 유일무이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본문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로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신인 일부일처제 타오스(Taos)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가 하나뿐인 아들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여기서는 매우 흔한 요한의

표현이 있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독생자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꾸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왜 누군가가 '글쎄, 좀 이상하다'고 말한 이유를 더 잘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누군가가 잘못 복사한 게 틀림없어요. 세타라는 단어, 문자 세타를 다시 엡실론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인 변화를 가졌다면 독생자라는 독서가 발생하는 것을 훨씬 더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이 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스어를 그다지 잘 몰랐던 서기관은 점심 시간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반쯤 잠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것을 날려버리고 세타 시그마 대신 엡실론 시그마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

이것에 대한 좋은 점은 어느 쪽이든 둘 다 요한의 높은 신학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매우 높은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실제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대체 읽기를 받아들인다면 구두점을 조금 다르게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토론이고 논쟁이며 미래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 변형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 나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천사가 못의 물을 휘젓는 일을 하고 있었고 못의 물을 그렇게 휘저을 때 물이 부글부글 끓고 파도가 일어나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돌았음이 분명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설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는 유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아람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덮개가 있는 다섯 개의 열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짓말을 하던 장애인, 맹인, 절름발이,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NIV와 최신 영어 역본에서는 그 부분부터 5절까지 건너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에는 4절에 추가 자료가 있는 더 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워 있던 장애인, 맹인, 저는 사람, 중풍병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었습니다.

그러한 소란이 일어난 후에 처음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될 것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이런 병에 걸렸음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나는 물이 동할 때에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다가온다.

따라서 문제는 천사가 물을 휘젓는 일이 실제로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이것이 단지 대중적인 신화인지, 대중적인 우화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한다는 대중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3절 끝에서 4절로 확장되어 이렇게 긴 읽기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외부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은 짧은 읽기를 가진 사본이 더 적습니다. 낭독이 있는 사본이 있는 것보다 물을 휘젓는 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문구가 있는 사본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더 긴 내용을 생략한 고대 사본은 적지만 더 많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원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훨씬 더 최근의 것입니다. 원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오래된 증언이나 고려 중인 다른 사항을 선호합니다. 내부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전체 읽기와 같은 여러 단어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동을

기다렸는지 자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때때로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습니다.

각 소란이 발생한 후 가장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내용이 의도치 않게 텍스트에서 누락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가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매우 의도적인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증거 측면에서 사고가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꺼내거나 넣거나 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신학에 대한 내적 증거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읽은 내용이 이 긴 읽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천사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까? 내 생각에 그램은 천사들을 신의 비밀 요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꽤 좋은 말이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휘저은 다음 앉아서 지켜보면서 누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신성한 비밀요원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거의 몬티 파이톤(Monty Python) 스케치처럼 그려집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영국의 코미디 극단인 Monty Python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스꽝스럽고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들이 할 일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이 운영하는 다소 잔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웅덩이에 조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치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처럼 빨리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내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바라셨던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삽입된 여백 메모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던 일부 서기관은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라는 취지로 여백에 메모를 썼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런 대중적인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에게 신학적인 냄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라고 개인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단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할 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본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문제인 본문 문제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데, 일곱 절의 마지막 구절이고, 그 다음에는 여덟 장의 처음 11절입니다.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하게 하고, 아마도 모세와 모순되는 말을 하게 하려는 구실로 예수님께 데려온 이야기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간음자의 페리코프(pericope de 간음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것은 간음한 여자의 페리코프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전치사 de를 빼고 속격에 간음이라는 뜻을 넣으면 됩니다. 간음한 여자에 대한 잠망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부 증언의 관점에서 볼 때 다시 한 번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동일하지만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교적 최근의 사본입니다. 그것은 소위 텍사스 리셉터스(Texas Receptus)라고 불리는 당시의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이라는 승인된 버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본, 상대적으로 늦은 사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페리코프 장면은 대부분 구할 수 있는 고대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외부 증거의 관점에서 이 글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이 페리코프에 대해 흥미로운 외부 증거에 관한 또 다른 점은 이 페리코프가 있는 일부 사본이 요한복음의 다른 위치에 그것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는 일부 사본은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본에서 찾을 수 있는 곳 외에 사본 전통에서 서너 곳의 다양한 장소에 나타나는 일종의 떠다니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원고에 관한 문제는 그것을 포함하는 많은 원고의 여백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독서의 여백을 따라 고대 오벨리스크에 놓여졌으며, 그 독서가 있는 일부 사본에는 그것을 포함하고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독자가 여기서 조심하는 것처럼 이것은 실제 거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부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여기에 많이 있으며, 어떤 것들은 요한복음의 원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내 생각에 페리코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야기를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요한복음 8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소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초막절 초막절을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다니며 그분에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러한 모든 메시아적 견해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그를 데려와서 확인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이 보낸 체포대는 정확하게 예수를 체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은 그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이 그 행위를 수행할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745년부터 시작됩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도 속였다는 말이군요? 바리새인들이 반박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원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아니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 폭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 니고데모가 7시 50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앞서 예수께 갔던 니고데모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르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행한 것을 먼저 듣지 않고서 사람을 정죄하리이까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장 12절로 직접 이동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도전했습니다. 8:13 여기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7시 52분부터 8시 12분까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포함해서 읽어보면 꽤 이상하게 앞뒤로 펼쳐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장면을 포함시키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새벽에 그분은 다시 성전 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작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다시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텍스트의 문학적 통일성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여자에 관해 말씀하셨고 여자에게는 지도자들에 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페리코프를 읽을 때 그는 바닥에 몇 번이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점차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떠나가므로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8장 9절에 따르면 거기에는 그들 두 사람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며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녀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네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다시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752년부터 페리코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페리코프에서 벗어나 복음의 나머지 부분인 8장 11절에서 8장 12절로 이동하면서 약간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외부 및 내부 증거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753년부터 811년까지가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 실제로 적합하지 않으며 원래 본문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방금 5장 3절과 4절에서 살펴본 페리코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의미의 내적 증거는 여기 요한복음 7장과 4절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읽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신학에 부합하고 부합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죄에 대해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은 가장 냉담하지만, 잡혀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죄에 빠져 있으나 기꺼이 그것을 버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누구든지 너를 정죄한 것 같이 나도 그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는 말은 완벽한 혼합, 완벽한 혼합, 균형을 잡는 완벽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은혜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죄에서 기꺼이 돌아서려는 사람에게 용서를 보여주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 구절이 신약성서의 다른 책들과 고대 사본들 중 일부에서 발견된다는 외부적 증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원래 서기 1세기의 실제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리코프는 예수의 다른 전통과 함께 초대 교회 주변에 유포된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원본 기록에서는 실제로 본거지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2세대 또는 3세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성서 사본의 복사. 그러한 이유로 이것은 역사적 예수의 진리를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원래 발생한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매우 강력한 교리를 가지고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보다 좀 더 온건하고 그 구절을 똑같이 가르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한 그 구절이 원래 요한복음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과 그 소개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요한의 역사적 배경,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책의 지리적 특징 중 일부, 그리고 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 텍스트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즐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곧 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요한복음 소개, 두 번째 부분, 역사적 및 본문적 문제입니다.